

'불수능'에 수능최저 비상...수시 이월인원도 급증하나



문·이과 통합 첫 수능...수학은 물론 영어도 어려워
수능최저 충족 문과가 더 불리...미충족 증가할 듯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생도 학부모도 '멘붕'에 빠졌다.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가운데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탓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 수학이 특히 어려웠다. 시험 직후 대부분 입시업체와 진학교사가 지난해 수능보다 수학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입시업체들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1등급 커트라인(1등급컷)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원점수 기준 1등급컷이 '확률과 통계' 85-89점, '미적분' 81-85점, '기하' 83-86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기형과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1등급컷은 모두 92점이었다. 원점수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내려간다.

국어도 1등급컷이 '화법과 작문' 82-85점, '언어와 매체' 82-84점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는 1등급컷이 88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약 6%로 예측됐다. 지난해 12.7%는 물론 전년도 수능 7.4%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은 물론 절대평가인 영어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충족

지 못한 수험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2개 혹은 3개 영역의 합산등급을 최저기준으로 반영한다.

특히 문과 학생들의 수능최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통합형 수능'이 첫 적용되면서 수학도 문·이과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고 성적도 통합해서 산출한다. 지난해까지는 기형과 나형 중 선택해 응시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했기 때문에 문과 학생 중 약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문·이과 학생이 공통과목(수학 I·II)을 같이 치르는데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과 학생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문·이과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며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상황에서 수학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능최저 미충족 비율은 이과에 비해 문과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면서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넘겨져 충원하는 '수시 이월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월 경우 수시 추가합격자가 많아지고, 수시모집에서 채워지지 못한 선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는 '수시 이월'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 지역의 한 진학담당교사는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수험생들이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짜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년만에 돌아온 충장축제 '코로나 모범'속 추억 여행

대면·비대면 병행...관람객수 제한·방역 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치러
문화예술인·소상공인 모처럼 활기...광주 전역 '충장 월드축제' 추진

광주의 대표축제인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충장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만에 개최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분산형' 축제로 안전한 모범축제의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날 추억의 충장축제가 4일간의 추억여행을 마치고 폐막식을 가졌다. 지난 18일 열린 개막식은 관객 1000명이 참석할 가운데 대형LED 전광판을 설치한 방송콘서트 무대를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신으로 불리는 송기인의 공연은 '앵콜'을 요청하는 관객들로 열기를 더했다가 게 동구의 설명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QR체크인과 손 소독 후 승차권을 받아(시간당 99명 제한) 관람객을 입장시킨 모나미 문구사, 타이거즈 포장마차, 3번 오라이버스 등 18개 추억 테마시설 또한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ACC 부설주차장에서 개최한 '드라이브 인 추억 콘서트'와 동구내 9곳의 아

파트 베란다에서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 통기타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충장 베란다 콘서트' 등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와 동반상생을 꾀했다고 자평했다.

축제기간 동안 충장상인회와 지하상가 상인회 등 전 상가가 참여한 '충장축제 스트리트세일'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30여 곳이 참여해 '충장축제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충장장터'를 개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연결고리가 됐다는 것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2년 만에 열린 올해 충장축제가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받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치러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추억의 충장축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대 등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 광주 전역으로 확대해 '충장 월드축제' (가칭)로 명칭을 달리한 뒤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2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일원에서 '힐링 YES 충장축제'를 주제로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비 오고 추워집니다

23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고 일 최고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며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23일 오전까지 5-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

하해 기온이 평년보다 5-10도 떨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측했다.

22일 일 최저 5도, 최고는 10도 미만 분포를 보이겠으며, 23일은 더욱 추워져 최저기온이 1도 안팎, 최고기온 7도 수준으로 전망됐다. 구례의 경우 23일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높으므로 예측됐으며, 24일 오전 광주와 전남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감사하는 마음'이 코로나 블루 예방 효과"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유병률이 약 5배 높아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우울증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일반인 1492명과 대학병원 간호사 64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각각의 연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인 'COVID-19 기간 동안 한국의 일반 인구에서 우울증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라는 논문과 'COVID-19 기간 동안 한국의 간호사에서 감사와 지각된 스트레스의 연관성' 논문은 영국의 저명학술지 'BMC Psychiatry'와 국제 정신건강간호협회 공식학술지 등에 발표돼 국제의료계

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뚜렷한 우울증세를 보인 환자는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인 4%대 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반면 1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블루 증세가 확실하게 낮게 나왔다.

또 다른 연구인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 3곳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요인이 정서적 소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효용감과 감사 성향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이란 ?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6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 광주일보